

# 중국 경제변화와 향후 통상전망

## The Economic Change of China and the Future Prospect of Trade

조석홍(Cho, Seok-Hong)\* · 이희석(Lee, Hee-Seok)\*\*

### 요 약 (ABSTRACT)

As China begins to enforce the open-door and innovation policies, it comes to rise rapidly in international economic stage. For the short time of only 20 years, China makes a great economic power. Up to now, China has tolerated a large population and infinite resources, so at last succeeded in economic policies, and has a fine future prospect in world economy. With the admission to the WTO, China will have a great influence on Korea. If we are to develop the trade much more, appeared until now after the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We should develop Korean economy by investing and trading in IT industries and newly Chinese regions.

**Key Word** : 중국, WTO, 경제, 통상, 산업

목	차
I. 서론	V. 결론
II. 중국의 경제현황	참고문헌
III. 중국의 WTO가입이 주는 영향	<ABSTRACT>
IV. 향후 중국통상 전망	

## I. 서론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하면서 국제 무대에 얼굴을 내민 이후 무서운 속도로 부상하고 있다. 개혁개방을 외치면서 불과 20여 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중국은 이미 세계의 중요한 경제 대국으로 자리하게 되었으며, 전통적인 국력과 새로이 축적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하여 국제 사회에서의 정치적 영향력 또한 막강해져 가고 있다. 세계은행(IBRD),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유수의 국제 기구와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미국의 FBI 등 권위 있는 기관들은 중국이 빠르면 2020년 늦어도 2030년에 가면 세계 최대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국제 사회에 대한 정치적, 군사적 영향력 또한 상용하는 성장을 가져와 중국은 명실상

\* 한국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성심외국어대학 강사, 경제학박사

부한 세계의 초강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중국은 12억의 거대한 인구나 무한한 자원을 포용하면서 폭발적인 성장세와 엄청난 잠재력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미국 및 일본 EU등 한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으로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인 국가로 떠올랐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10여년이 지나면서 교역량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최근의 마늘교역에 따른 조치 등을 볼 때 가까우면서도 먼 곳의 교역국이라는 느낌을 주지만 거대한 수요의 잠재력과 중국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한 대중투자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한국 및 아시아지역의 동반자적 국가가 되어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 중국의 WTO가입으로 인해 중국시장의 개방을 더욱 확대되고 중국의 경제상황이 변화된다면 세계경제질서의 흐름과 또한 우리 나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중국은 이제 세계의 규범 속에서 거래해야 하므로 중국의 무역·산업구조 및 대외관련정책도 큰 변화를 보일 전망이다.

이처럼 무섭게 성장하는 중국 같은 동북아 이웃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에게서는 우리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중국과 이웃하고 있는 우리는 중국의 발전이 동북아의 공동 번영과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는 중국에게 이러한 우리의 희망을 계속 주지시켜야 할 과제도 안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의 미래 전략을 전망하고 합리적인 우리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II. 중국의 경제동향

### 1. 중국의 경제변화

#### 1) 경제대국으로 급부상

1970년대 말 개혁개방 정책이 추진된 가운데 중국경제는 빠른속도로 성장을 지속하였으며,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에도 중국은 경제적 위상 강화를 하였다. 2000년 중국의 GDP는 8%의 고성장을 하였으며 장기적으로도 7~8%의 안정적 성장 지속 전망이다.<sup>1)</sup> 따라서 향후 미국을 추월하는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구나 중국은 80년 이후 연평균 9.6%의 유례없는 고도성장을 구가하였고, 95계획기간중(96~2000년)에는 연평균 8.3% 성장을 하였다. 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오히려 중국의 위상은 강화하였는데 구체적으로 97~99년 기간 중 주변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위기 영향으로 중국경제의 성장률도 다소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7~8%의 성장률을 유지하였고, 외환위기 당시 아시아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하면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을 과시하면서 이 무렵 아시아 국가들의 통화 절하로 위안화 평가절하 압력이 있었으나 환율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아시아 금융위기를 확산 방지하였다.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중국은 정치·군사적 측면에서 뿐만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대국으로서 세계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는 아시아 경제위기의 영향 속에서도 의연한 모습을 보이고 개혁·개방 20년의 성과가 가시화된 2000년 중국경제는 정부목표 7%를 상회하는 8%로 성장하였고, 현재 세계 7대 경제대국으로 2000년에 최초로 GDP 규모 1조달러 돌파하였다.<sup>2)</sup>

1) 산업자원부, 2001. 3

&lt;표 1&gt;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2000	2001
GDP 규모	10억달러	1,062	1,168
실질성장률	%	8.0	7.7
인당 GDP	달러	840	915
구매력평가(PPP)기준	달러	4,700	5,130
소비자물가 상승률	%	0.6	2.3
산업생산 증가율	%	10.0	8.8
실업률	%	7.0	6.0
외환보유고	억달러	1,670	1,720
총외채	대GDP 비중(%)	15.3	14.1
경상수지	억달러	93	152
수출	억달러	2,317	2,575
수입	억달러	1,980	2,301
무역수지	억달러	337	274

자료 : Financial times, 2000. 11.

이러한 중국의 고도성장 배경에는 첫째, 정부정책의 측면에서 경제의 점진적인 시장화·자유화와 제조업 중심의 연해개발전략과 단계적 대외개방을 추구한 중국식 개혁·개방 정책의 성공에 연유하고, 둘째, 공급 측면에서 노동과 자본의 투입이 빠르게 증대됨으로서 성장이 촉진되었다. 이는 12억에 달하는 인구와 농촌의 충분한 잉여노동력으로 인해 노동력 투입의 증대가 용이했고, 높은 저축률(현재 GDP의 40% 수준)과 외자의 대규모 유입으로 투자를 또한 높았기 때문이다. 셋째, 경제의 공업화, 시장화, 대외지향화가 착실하게 진전되면서 노동과 자본이 생산성이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산업내 경쟁이 촉진되었으며 외국인투자의 대규모 유치로 선진 기술과 경영기법의 도입이 촉진됨으로써 생산효율이 크게 향상 되었다.

현재도 중국 경제구조의 급속한 변화는 계속 진행중이며 이는 최근 중국경제구조가 21세기에는 중국 경제의 모습이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재편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과거 중국의 개방은 개방지역을 확대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진행시 조세혜택 등 인센티브 부여로 지역적 개방의 추진 과정은 점개방으로부터 선개방, 면개방, 전방위 개방의 점진적·단계적으로 진행하였는데, 1단계는 1987년부터 83년까지 점개방 단계로 80년대 최초 개방지역으로 광둥성 심천, 주해, 산둥과 복건성 하문에 경제특구 설치했고, 2단계는 84년부터 87년의 선개방 단계로 84년 14개 연해지역의 주요 항만도시를 개방도시로 지정하고 경제기술개발구 설치와 85년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및 민남삼각주를 개방지역으로 지정하였다. 3단계는 88년부터 91년의 면개방 단계로 88년 산둥반도, 요동반도 및 환발해지역이 경제개방구로 지정하였으며 마지막 4단계는 92년 이후 전방위 개방단계로 등소평의 남순강화(南巡講話: 92년초 심천, 광주 등 남부지역을 순시하며 개혁개방의 가속화를 역설) 이후 국경지역 및 내륙지역으로 개방 확산하였다. 그러나 지금 중국은 발전의 기초를 만들기 위한 지역적 개방의 확대로부터 산업발전을 고려한 산업정책적·전략적 차원의 개방으로 전환중이다. 개방확대로 발전하는 추세로 정보통신, 인터넷, 금융, 유통 등 산업적 측면에서 기존의 개방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전통산업 분야 위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

2) 산업자원부, 2001. 3

즉, 중국은 과거에는 지역적 개방의 확산에서 WTO가입을 계기로 하여 첨단 산업중심으로 발전의 중심지를 이동하려 하고 있다.

## 2) 중국의 10·5 계획

중국은 2010년에 2000년 GDP의 두배를 달성하기 위한 기반 조성하려는 기본 목표로 삼고 구체적인 목표로 지속적인 고도 경제성장, 농업발전, 과학기술 및 교육발전, 서부대개발을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 WTO 가입에 대비한 대외 개방 확대, 국유기업 개혁, 빈부격차 해소와 실업문제 해결 등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10·5 계획이 종료되는 2005년 주요목표 경제지수는 연평균 경제성장 7%, GDP 규모 12조 5,000억 RMB(약1조5400백만불), 1인당 GDP 9400RMB(약1,160달러)로 계획을 하였다.<sup>3)</sup> 중국이 계획 발표한 10·5계획의 분야별 주요 목표는 첫째, 비교적 빠른 국민경제 발전속도의 유지와 전략적 경제구조 조정의 효과 달성 그리고 경제성장의 질과 효율 제고로 2010년 국내총생산을 2000년의 2배로 증대시킬 수 있는 기반 조성하려는 데 있다. 둘째, 국유기업에의 현대기업제도 도입 가속화와 사회보장제도의 건전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완비 및 대외개방과 국제협력 확대에 있다. 셋째, 취업 확대로 도시 및 농촌주민들의 지속적인 수입증대와 물질문화 생활의 대폭개선과 과학기술과 교육발전 및 국민자질 향상 등이다. 또, 주요 지도방침으로는 지속적인 발전 목표로 효율제고의 전제하에서 비교적 빠른 발전 실현과 10·5기간 연평균 경제성장 7%를 목표로 하였다. 지속적인 경제구조 조정을 위하여 향후 5년간 산업구조 조정을 중심으로 지역구조와 도·농구조 조정에 노력과 농업의 기초적 지위 공고화, 공업구조 개편, 서비스업 발전, 국민경제와 사회정보화, 산업간접자본 건설에 중점을 두었다.

# Ⅲ. 중국의 WTO가입과 향후 전망

## 1. 중국의 변화

### 1) 중국 경제 전반에 주는 영향

첫째 중국의 WTO가입으로 중국에 주는 가장 큰 변화는 세계경제에의 편입가속화이다. 중국의 WTO가입은 글로벌 경제에의 편입을 의미하는데, 즉 국제무역규범과 준칙을 준수해야 할 의무와 책무를 갖게 됨으로서 지금까지의 전근대적이고 불합리한 국내법규, 관행에서 벗어나, 공정무역과 자유경쟁이란 틀 속에서 움직여야 한다. 또, 중국의 WTO 가입은 무역·투자장벽을 완화시키고, 업종별 진입장벽을 낮추게 됨으로서 중국경제의 대외개방이 가속화 될 것이므로 따라서, 중국내 비즈니스 환경의 큰변화와 시장 재분할이 이루어지고, 그동안 연해지역, 제조업종에 치우쳤던 개방효과가 내륙지역과 서비스, 하이테크 업종으로까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중국은 그간 중국산업 보호를 위한 관세·비관세 장벽의 점진적 폐지에 따라, 왜곡되었던 자원배분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중국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3) 외교통산부, 2001. 3

장기적으로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중국의 GDP 성장률이 0.5% 내지 1% 상승하는 효과 기대도 있지만 반면, 단기적으로 특히, 단기적으로는 특히, 현재 관세·비관세 장벽의 보호를 받고 있는 농업부문(면화, 밀, 콩, 옥수수 등)과 일부 기계공업(자동차 등)이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중국의 WTO 가입은 대외적으로는 중국경제의 투명성(transparency) 및 예측가능성 제고로 대외무역과 외국인 투자가 증대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예로서, 미국 연구기관의 분석으로는 2005년에 중국무역이 현행의 약 2배에 달하는 년6,000억불, 외국인 투자도 년1,000억불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국무원 연구중심 등 중국측 연구기관은 국내 산업구조조정 영향 등을 고려, 연 10% 증가 등의 보수적인 예측을 하였다. 넷째, 만약 중국이 대만과의 WTO 동시가입이 실현되고, 경제교류가 적극화 될 경우 중국대륙·홍콩·대만을 묶는 중화경제권내에서의 교역 및 투자활동이 더욱 강화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영향력 증대가 예상된다.

그러나 중국의 WTO가입이 중국경제전반에 주는 영향으로 거시경제, 무역정책변화, 투자제도 개혁, 산업구조 고도화, 기업구조조정등에서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의 양면성을 보여주고 있다.

<표 2> WTO 가입에 따른 중국경제에의 영향

분 야	긍정적 영향	부정적 영향
거시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개방 확대, 규제, 철폐로 성장 제고 효과</li> <li>· 경제 구조조정(개혁) 가속화</li> <li>· 중국경제의 지속적 발전 조건 정비</li> <li>· 중국의 경쟁력 제고</li> <li>· 수입가격 하락으로 소비자 후생 증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업증가, 사회불안 증가</li> </ul>
무역정책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역환경 개선, 무역 확대</li> <li>· 미국 등의 쿼타 철폐로 방직, 가전 등의 품목 수출 증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 선진제품에 의한 국내 시장 잠식</li> <li>· 고급제품 수입 증가</li> <li>· 무역수지 악화</li> </ul>
투자제도 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과 제도 투명성 제고 등 사업 환경 개선</li> <li>· 외국인 투자 증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취약산업 붕괴</li> </ul>
산업구조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구조 고도화</li> <li>· 외국자본 유입으로 정보통신, 전자등 첨단산업 발전</li> <li>· 금융, 서비스산업 발전 가속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실기업, 금융기관 파산 가속화에 따른 불안정</li> <li>· 국내 산업구조의 이중성 심화 우려</li> </ul>
기업 구조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간 M&amp;A, 기업구조조정 가속화</li> <li>· 기업경쟁력 강화와 체질개선</li> <li>· 유망 사영기업의 성장과 국유기업의 재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실기업 및 취약기업의 도태</li> </ul>

자료 : 산업자원부, 2001. 3

2) 산업부문에 주는 영향

중국의 WTO 가입은 중국의 산업 성장은 물론 고용구조 및 기업의 구조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산업구조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WTO 가입으로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경쟁력이 강한 노동집약적 산업은 주요 선진국의 대중국 무역장벽이 완화됨으로써 수출과 생산이 확대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높은 관세율과 비관세장벽으로 보호되어 왔던 중국의 경쟁력이 약한 농업과 자본·기술집약적인 산업은 외국제품과의 경쟁에 직접적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WTO가입 이후 생산감소가 예상된다.

좀더 구체적으로 농업부문에서는 중국의 농산물 가격은 대부분 국제가격보다 높기 때문에, 2010년 경에는 중국이 곡물수입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질이 좋은 외국농산품의 중국시장 반입으로 중국 농산품의 판매가 어려워 질 가능성이 있다. 또 WTO가입시 농촌 노동력 등이 약1,000만명이 여타 부문으로 이동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산업현대화 진전에 따라 농촌인구의 도시유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공업부문은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점진적 철폐에 따라,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부문 방직, 의류 등 노동집약적 산업은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나, 자동차·철강·화학·의약품 등 부문은 시장 개방에 따른 충격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중국 측은 공업제품 특히 자본·기술 집약적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격인하, 기술개발이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서는 시장개방과 외국과의 협력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시장 역시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점진적 개방을 추진함과 동시에 국내시장에 경쟁원리 도입을 통한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 서비스 분야중 은행·보험·소매·통신·관광·법률·회계 등 분야의 국내업체 타격 예상 및 외국의 지적재산권보호 강화에 따라 무역의 수지 악화가 예상된다.

<표 3>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생산구조 변화 전망

	1995년	2005 (A)	2005 (B)	B-A
농림수산업	12.2	9.9	9.95	0.03
광업	4.2	4.0	4.15	0.11
식품가공업	5.4	4.5	4.40	-0.07
섬유 및 의류	7.0	4.6	4.87	0.29
종이 및 펄프	2.5	2.6	2.54	-0.05
석유화학	8.0	7.6	7.65	0.07
금속업	7.2	8.5	8.11	-0.43
수송기계	2.0	3.4	2.97	-0.39
전기기계	2.0	2.7	2.93	0.24
일반기계	8.9	11.7	10.98	-0.71
기타 제조업	7.1	7.0	7.78	0.76
전기·가스·수도	3.6	3.4	3.42	0.02
건설업	7.1	6.6	6.64	0.02
운송업	12.6	12.8	12.92	0.09
민간서비스	5.8	5.5	5.52	0.01
공공서비스	4.5	5.2	5.18	0.02

자료 : 日本經濟研究所, 2000.

결국, WTO 가입이후 중국의 산업정책은 국내의 자본·기술 집약적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 초점이 맞추어 질 것이며, 동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확대됨으로써 중국의 자본·기술 집약적

산업 전반이 경쟁력도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WTO 가입은 생산측면에서는 식품가공, 종이 및 펄프, 철강, 수송기기, 일반기계의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섬유, 의류 등 기타 제조업의 비중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비교우위구조의 변화에 있어서는 농림수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반면, 섬유와 의류에서는 비교우위가 절대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였는바, 이는 보다 장기적으로는 생산요소의 축적과 자유화가 이루어짐으로써 2010년에는 자동차, 수송기계, 일반기계가 비교우위를 가지게 되는 등 산업구조가 고도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3) 우리나라에 주는 영향

(1) 교역에 주는 영향

중국의 WTO가입은 우리나라가 가장많은 영향을 받는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1992년 한·중수교를 맺은이후 놀랄만한 성장을 가져오고 있다. 과거 20여년간의 교역현황을 보면 계속적으로 증가하며 흑자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4)

<표 4> 한국과 중국 10대 교역 품목(2000)

순 위	10대 수출품목			10대 수입품목		
	품목명	금액	증가율	품목명	금액	증가율
1	합성수지	1,577	20.6	곡 류	722	247.4
2	방카 C유	1,314	54.1	유 연 탄	643	55.6
3	가 죽	755	25.7	컴퓨터주변기기	585	77.6
4	기타 전자관	710	76.1	직물제의류	541	90.5
5	컴퓨터주변기기	689	162.0	편직제의류	317	54.5
6	합섬원료	566	63.1	IC	279	28.7
7	중간원료	510	53.9	냉동어류	242	13.8
8	기타의 직물	508	22.1	선 철	242	61.0
9	열연강판	450	50.4	소형전동기 및 부품	226	30.5
10	IC	449	214.2	P/C 직물	195	9.3

자료 : KOTIS(MTI 4단위 기준)

중국의 WTO 가입은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완화로 우리의 대중교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나, 장·단기적으로 교역의 내용면에서는 변화가 예상된다.

단기적으로는 전자·통신·자동차 등의 고부가가치 완제품, 원부자재와 부품 수출의 대중수출이 증가할 것이나, 장기적으로 중국상품의 경쟁력 제고에 따라 대중 수입도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장기적으로는 한·중 양국간 교역불균형이 어느정도는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중국의 WTO 규정준수와 투명성 제고로 미국·유럽 등 선진국의 중국시장 진출 가속화와 중국 국내산업의 경쟁력 제고로 중국시장 진출이 과거보다는 상대적으로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국 등 제3국 시장에서 중국의 저가제품의 진출 즉, 특히 의류, 신발, 전자제품 등이 늘어남에 따라, 제3국 시장에서 우리측의 어느 정도 시장상실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4) 산업자원부, 2001. 3

4) 투자에 미치는 영향

(1) 투자 구조 변화

우리나라의 중국투자는 제조업 분야에서 어느정도 성숙단계에 진입한 반면, 아직 IT산업과 서비스 등의 새로운 분야에서 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WTO 가입과 더불어 중국 내수시장 접근에 대한 제한이 크게 완화될 경우 내륙의 내수시장을 목표로 한 투자가 증가하는 등 지역분포에 있어 우리기업의 중국 투자전략도 점차 변해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중국시장이 통일된 하나의 시장이라기 보다는 지역별로 분절된 시장이라는 점과 새로운 시장으로 부상하게 될 중서부 지역의 투자여건이 개선됨으로써 우리기업의 중장기적인 중국지역에 대한 투자전략 변화가 불가피하다.

더구나 중국은 WTO 가입과 더불어 통신, 금융, 보험, 유통 및 전문 서비스 시장에 대한 대대적인 개방을 준비하고 있어 이들 분야에 대한 우리기업의 중국 진출 여건이 이전보다는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중국은 이들 분야의 외국인 투자를 허가하는 과정에서 정치적인 요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개방이 확대되는 서비스 분야에 대한 우리기업의 진출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결국, 중국의 WTO가입이 한국의 대중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긍정적인 측면의 예상은 첫 번째, 중국은 WTO 가입으로 인해 법규, 정책, 제도가 보다 투명해지고 공정한 투자환경이 개선될 것이다. 둘째, 중국산 원자재사용, 생산품에 대한 수출이행의무, 외환수지 평형의무 등 무역관련조치가 TRIMs협정에 일치시켜 규제가 완화 폐지하게 된다. 따라서 시장제한의 완화로 인해 기업의 대중국 직접 투자진출도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WTO 가입이후 중국의 경제개혁, 개방의 가속화는 중국경제의 시장화를 촉진시키고 내수시장의 규모를 확대시켜 줌으로써 '시장개척형' 직접투자 유치에 중대될 것이다.

부정적인 측면은, 첫 번째 한국에 생산기지를 갖고 있는 미국, 일본 등의 다국적 기업들이나 대한 투자자들이 중국으로 이전하거나 투자선을 변경을 예측할 수 있다. 둘째, 중국내에서의 외자기업간 경쟁이 치열해짐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대중투자업체의 존립에 위협이 있을 수 있다. 셋째, 중국이 WTO에 가입하게 되면 중국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인해 한국기업의 경쟁력 상실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업은 상황에 따른 성급한 철수 및 진출을 가급적 자제하고 저임·저가위주의 전략에서 탈피하여 품질혁신, 기술개발 및 애프터서비스에 주력하여야 한다.

<표 5> 한·중 교역동향 (한국측 통계)

(단위 : 억불, %)

구 분	96년	97년	98년	99년	2000년
총 액	199.2 (20.4)	235.5 (18.2)	184.3 (-22.3)	226 (22.6)	314.1 (43.2)
對中수출	113.8 (24.4)	135.7 (19.3)	119.4 (-12.0)	137 (14.6)	186.1 (37.6)
對中수입	85.4 (15.4)	99.8 (16.8)	64.8 (-35.9)	89 (36.7)	128.0 (62.4)
무역수지	28.4 (62.8)	35.9 (26.4)	54.6 (52.1)	48 (-11.0)	58.1 (3.5)

자료 : 중국대사관, 2001. 3



<표 6> 한·중 교역동향 (중국측 통계)

(단위 : 억불, %)

구 분	96년	97년	98년	99년	2000년
총 액	199.7 (17.7)	240.5 (20.3)	212.6 (-11.6)	250.4 (17.7)	345.0 (37.8)
對中수출	75.1 (12.3)	91.2 (21.5)	62.7 (-31.3)	78.1 (24.9)	112.9 (44.6)
對中수입	124.8 (21.2)	149.3 (19.6)	149.9 (0.4)	172.3 (14.7)	232.1 (34.7)
무역수지	-49.7 (38.1)	-58.1 (16.9)	-87.2 (50.1)	-94.2 (8.0)	-119.2 (20.1)

자료 : 중국대사관, 2001. 3

<표 7> 대중국 투자동향

(단위 : 억불)

		97년	98년	99년	2000	누계
한국통계	투자	6.3 (623건)	6.3 (242건)	3.1 (429건)	2.9 (657건)	46.2 (4,910건)
	신고	9.1 (743건)	8.2 (820건)	4.5 (539건)	5.5 (778건)	77.6 (6,303건)
중국통계	투자	21.5	15.3	14.5	15.0	103

자료 : 한국 수출입은행,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 2001. 3

## IV. 향후 한중 통상 전망

### 1. 첨단산업 교역전망

#### 1) 중국 정부의 인터넷 정책

중국 정부는 1993년 인터넷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선정한 후 중앙·지방정부 기구 및 군부대와 대기업의 인터넷 사용을 독려하고 있다. 1999년에 이어 2000년도를 “인터넷 가입의 해”, “전자업무의 해”로 지정하고 국민의 인터넷 이용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특히 중국정부는 인터넷 관련 지식기반 구축에도 주력하고 있는데, 전자상거래 관련 입법 추진 등 제도 정비와 함께 인터넷 전용 정보교환망 설치·인터넷 주식 거래 추진 및 인터넷 금융을 시범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간 기간 인터넷망을 연결시키고 네트워크 자원의 충분한 이용과 상호보완을 촉진시키고 있다.

또한 정부차원의 ‘기업정보화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국가 중점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내부 정보네트워크 구성, 인터넷 접속확대, 정보자원 관리와 전자상거래의 활용 등을 통해 중국기업 전체의 정보화를 도모하고 있다. 정보산업부는 향후 5년내 중국 기업의 대부분이 전자상거래를 활용토록 유도한다는 방침을 설정하고 있다.

#### 2) 인터넷 활용실태

중국 인터넷정보센터(CNNIC)는 중국과학원에서 설립·운영하는 인터넷서비스 총괄기관으로 도메인 등록, 웹사이트 관련 데이터 제공 등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으며, 인터넷 네트워크 구축 및 웹사이트 등록현황, 인터넷 활용실태 등을 지난 1997년 11월이후 반기별로 중국인터넷 발전 통계보고서를 발표해 오고 있다.

<표 8> 인터넷 컴퓨터 보급 현황

(단위 : 1,000대)

기간	1997. 11	1998. 7	1998. 12	1999. 7	1999. 12	2000. 7
수량	299	542	747	1,460	3,500	6,500

자료 : 산업자원부 자료인용 재작성

\* 2000년 7월 650만대중 전용선사용 101만대, 모뎀사용은 549만대임.

<표 8> 인터넷 사용인구

(단위 : 만명)

기간	1997	2000. 7	2002 (예상)
인구	62	1,690	6,100

<표 10> 지역별 인터넷 사용 추이

(단위 : %)

지역	북경	광둥성	상하이	티벳	칭해성
비율	18.72	12.82	10.79	0.03	0.07

연령별로는 18-30세(75.95%)로 30대(15.62%), 40대(5.07%)순으로 여전히 35세 미만이 압도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간 인터넷이용자비율은 매년 10%정도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남성이 75%를 차지하여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직업별로는 컴퓨터 관련업종 종사자(13.60%), 과학연구 및 교육(12.63%)의 비율이 높은 반면, 농업(0.62%), 경찰 및 법조인(1.53%)로 비율이 저조하였다.

한편, 인터넷 사용목적은 뚜렷하게 변화를 보이지 않아, 정보수집이 5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학업목적 11%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용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인터넷 서비스로는 전자우편(88%), 검색엔진(56%) 등이며, 온라인 채팅이나 온라인 구매 등이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인터넷과 관련하여 이용자들이 불만족하고 있는 것은 느린 접속속도(40%)와 서비스(26%)를 지적하였다.

### 3) 중국의 전자상거래 실태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는 시장규모면에서 99년 약 4,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5배 급증한데 이어 2003년에는 38억 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 99년도 전체 인터넷 이용자(890만명)의 약 9%인 80만명이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입한 반면, 2000년 7월에는 전체 이용자(1,670만명)의 14%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sup>5)</sup>

5) 산업자원부, 2001. 3

중국 정부는 국가경제무역위와 정보산업부 주도로 “향후 5년내 중국기업 대부분이 전자상거래를 활용토록 한다”라는 목표하에 기업의 전자상거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정보산업부는 민간이 선도하는 중국내 인터넷시장에서 정부의 관리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정보기술관련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인터넷 관련 기업 설립과, 국무원 국가정보화팀 역시 정보자원 개발과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국가정보화 건설을 추진한다는 목표하에 자체 개발한 전자상거래 서비스플랫폼 전국시범사업을 연내 실시한 바 있다.

#### 4) 중국 인터넷산업 전망

중국은 중국의 인터넷 국가 기관인 중국 인터넷정보센터(CNNIC)의 조사 수치를 인용하여 2001년에는 2천만명을 넘고 5년내에 5천만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PC외의 인터넷 사용 개시로 유선 TV를 통한 인터넷 접속이 실현될 수 있게 되었으며, WAP 휴대폰의 인터넷 접속이 본격적으로 실용화와 함께 ISDN 인터넷 접속이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ADSL은 대도시에서 사용자가 점증하고 있다. 따라서 WTO 가입 이후 PC 부품시장의 성장이 예상되며 조립 PC 시장의 발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중국 전자상거래 교역액이 2002년에는 100億元(12억달러)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자상거래의 발전은 임 거부할 수 없는 흐름으로 이제까지 전자상거래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던 중국 전통산업의 공업 및 상업기업들이 앞으로는 끊임없이 전자상거래의 무대로 뛰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전자상거래 인제 부족 현상이 심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분야의 인제 스카우트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며, 전자상거래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관련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 된다.

그러나 물류배송과 대금지불 문제가 전자상거래 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중국은 지역이 넓고 유통시스템이 아직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에 있어 지불문제와 더불어 물류문제가 가장 큰 난점으로 대두된다.

따라서 지불문제와 물류문제의 해결 없이는 상당한 기간 동안 중국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발전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또한 아직은 사이버산업 관련법의 미비와 잦은 변경으로 외국 기업의 진출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중국은 초창기에는 외국인투자자에 대해 매우 관대하고 우호적이지만, 일단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면 중국기업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향이 있다.

현재 중국에 진출한 인터넷 관련 외국기업들은 여러 분야의 사업 승인을 미리 받아 위험을 분산 시킴으로써 만약에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하는 실정이어서 우리 기업들도 중국의 법률 및 정책 변화와 외국기업의 대응방법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지만, 앞으로 중국어가 영어에 이어 세계 제2의 언어가 될 것이며, 중국이 인터넷 도메인까지 중국어로 바꿀 계획이므로 우리의 대중국 진출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우리 상품과 문화에 대한 중국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아울러 중국어와 한글 자동번역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

## 2. 무역·투자 연계한 진출

### 1) 한국의 대중국 투자 추이와 구조

수교후 계속 증가세를 나타냈던 한국의 대중국 투자가 금융위기를 계기로 급격히 감소하였다가

최근 들어 회복세로 전환하였으며, 이는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외자유치정책과 한국의 생산비용 상승에 기인한 해외 투자의 필요성 증대가 상승작용을 일으킨 결과 90년대 중반까지 대중국 투자가 매년 급증하였다.

또한 한·중간의 산업구조상의 강한 보완성, 개발경험이 체화된 한국 산업기술에 대한 중국의 높은 관심, 한국 업체들의 중국시장 잠재력에 대한 높은 기대도 대중국 투자 증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표 11> 한국의 대중국 투자 추이 (단위 : 건, 백만달러)

구 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누 계
건 수	378	839	737	718	611	242	411	4,251
금 액	264	632	823	836	633	631	289	4,333

자료 : 재정경제부, 2000. 1  
주 : 투자기준

## 2) 한국의 대중국 투자 특성

### (1) 특정 지역 위주로 편중

우리의 대중국 투자는 중국 전체 외국인 투자와 비교할 때 지리적으로 인접한 동북3성과 환발해만 지역에 집중하였으며, 한국의 중국 동부지역에 대한 투자 비중은 건수 기준 83.9%, 금액 기준 65.1%이나, 반면에 미국, 유럽, 대만, 홍콩 등 중국 외국인 직접투자는 시장이 발달하고 구매력이 좋은 남부 연해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또한 우리 기업의 1인당 평균 투자 금액은 남부연해지역이 225만달러, 동북부지역이 78만달러로 남부연해지역에 진출한 기업의 투자 규모가 동북부에 비해 약 3배나 크다. 그러나 남부 연해지역의 외국인 직접투자의 평균 규모는 208만달러로 한국보다 약간 규모가 적다.

<표 12> 지역별 대중국 투자 구조 (단위 : 건, 억달러)

지 역	건수(허가 기준)			금액(계약 기준)		
	중국전체	한국투자	비 중	중국전체	한국투자	비 중
동북부지역	94,684 (27.7)	3,569 (83.9)	3.8	1,435 (23.4)	28 (65.1)	1.9
남부연해지역	180,430 (52.8)	577 (13.6)	0.3	3,759 (61.3)	13 (30.2)	0.3
기 타 지 역	66,424 (19.4)	105 (2.5)	0.2	934 (15.2)	2 (4.7)	0.2
합 계	341,538 (100.0)	4,251 (100)	1.2	6,128 (100.0)	43 (100)	0.7

자료 : 중국 대외무역경제협력작부, 한국 재정경제부

## (2) 새로운 통상거점 지역

최근 중국은 첨단산업 발전의 중심지로서 최근 연해지구 중에서도 상해, 북경 중관촌 등 첨단산업 중심지들로 부상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3대 발전 중심지역들은 북부권(북경, 천진지역), 중부권(상해, 장강델타지역), 남부권(광주, 심천, 홍콩지역) 등이다. 포동을 포함한 상해지역은 장강(양자강) 유역 발전의 기점으로서 반도체, IT산업 등 첨단산업과 금융서비스의 중점 발전지역으로 중국의 중심을 관통하고 있는 양자강의 발전을 용의 몸통에 비유한다면 상해는 용의 머리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상해지역 경제는 중국에서 가장 높은 성장세 시현 했으며, 2000년 GDP 성장률은 10.2%로 8년 연속 2자리수 성장과 중국 전체에서 차지하는 GDP 비중은 99년 4.6%, 2000년 4.9%를 차지하고 있다. 또, 제조업, 하이테크 산업, 서비스 산업 등에서 외국 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 폭스바겐, GM, NEC, 소니, 인텔, 휴렛패커드, 루슨트 테크놀로지, 벨, 보쉬, 바스트 등 세계적 선진기업들이 대부분 진출해 있다.<sup>6)</sup>

상해 포동지구는 다른 경제특구보다 10년 늦은 90년에 국가급 개발구로 지정되었지만 중국 개혁 개방의 최선두로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은 금융무역구(국제금융센터), 수출가공구(신홍산업과 하이테크기업의 밀집), 보세구(자유무역, 창고, 수출가공기지), 하이테크구(하이테크산업, 바이오테크놀로지)등으로 발전하고 있다.

장강델타지역은 향후 세계의 하이테크 메카로 성장할 전망이다, 상해 및 인근 소주(蘇州), 무석(無錫)등 장강델타지역에 구미일 제조업체들이 집중되어 글로벌경쟁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실리콘 밸리로 불리는 북경 중관촌(中關村) 지역은 중국 인터넷 산업 및 과학기술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는 지역으로 중관촌이 중국 지식산업의 중심지로 등장한 것은 1988년 8월 중국정부는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장기전략의 일환으로 중관촌을 제1호 첨단기술 개발구로 지정하였다.

현재 중국 최고의 두뇌집단과 함께 미국 IBM, GE, 일본 미쯔비시 등 130여개의 세계적 기업 및 랜상, 베이다광정(北大方正), 스통(四通) 등 중국의 유명 첨단기업들이 입주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주도와 집중적 지원하에 서부대개발을 대대적으로 추진중이며, 개혁·개방 이후의 동서간 빈부격차 확대, 이로 인한 지역적 불만, 환경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해결하였고, 중국 전지역으로 발전을 확대하고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추진하여 이미 개방, 발전된 연해지역은 외국인 인센티브를 점차 줄이고 있는 추세인데 비해 서부대개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지원으로 적극 장려하고 있다.

중국서부는 광활한 면적과 풍부한 천연자원 매장에도 불구하고 낙후되어 주민생활은 중국에서 최저 수준이다. 그러나 서부대개발의 중점 투자항목은 천연 자원개발을 위한 기초 인프라 건설을 추진하여 도로, 철도, 공항 등의 인프라 건설로 향후 10년간 15만km의 고속도로 건설 계획과 이후 석유, 천연가스, 광산물 등의 자원개발과 전기·통신·수도, 환경보호, 교육 및 위생서비스 등을 할 예정이다.

## V. 결 론

1970년 후반 개혁·개방을 의치면서 국제경쟁 무대에 얼굴을 나타낸 중국은 지금까지 중국경제가

6) 외교통상부, 2001. 3

지속적 내수확대, 확대재정·적정통화 정책, 경제구조조정, 농업기초 강화, 국유기업개혁, 서부대개발, 수출증대 등의 많은 분야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향후 경제정책방향은 첨단과학기술경쟁력 제고, 하이테크산업과 전통산업간, 기술·자본집약산업과 노동집약 산업간, 동부와 서부지역간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조정을 실시할 것으로 보이며 WTO 가입에 대비한 제도개선, 서부개발을 위한 SOC 건설 등을 계속 추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구나 지금 중국은 전통 제조업에서 뿐만 아니라 첨단산업의 생산거점으로서의 위상도 빠르게 부상하고 있어 세계적인 IT 붐이 일면서 중국이 세계 우수 IT 기업의 생산기지로 부각되고 있다.

진출지역에 있어서는 현재 상해시가 많은 부문을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 중국의 실리콘 벨리라 할 수 있는 중관촌 지역을 중심으로 북경 지역에 대한 투자가 크게 확대되는 추세이다. 광동성은 주변 기기와 하드웨어 분야 진출이 활발한 반면, 북경과 상해지역은 소프트웨어 분야 진출이 활발한데, 이것은 북경의 중관촌과 상해 포동지역 등 대도시 지역에서 IT 기술자의 고용이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 인터넷 이용자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의 WTO 가입과 더불어 시장개방이 확대되면서 IT 생산기지로써 중국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10·5계획 기간 중 선진기술을 도입하여 전통사업의 고도화를 추진을 계획할 것이며, 반도체, 전자, 철강·화학 등 우리의 대중 주요수출산업에 대한 대중 기술우위 확보 방안이 조속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 중국은 IT 산업이 공업화의 비용을 줄이고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능을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우리는 IT 산업 등 정보사업을 육성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중국의 급부상에 따라 한국경제의 위상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시장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우리의 경쟁자로서의 지위 강화와 외국 선진기업의 입장에서 중국, 한국, 일본 등은 같은 아시아 시장권, 따라서 아시아의 전략적 생산기지로 한국보다 중국을 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의 변화와 부상에 경각심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중국시장에서 한국경제의 활로를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는 우선 중국시장에 대한 기존관념에서 탈피해야 하며 중국은 더 이상 저가의 저급한 단계의 시장이 아님을 인식하고 가격경쟁력, 저임금 등 중국시장에 대한 전통적 사고에서 탈피해야 한다. 또, 시장에서 가격경쟁력 보다 품질과 서비스, 마케팅의 중요성 증가·저급기술 이전은 지양하며 중국시장에서 승리하면 세계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음으로 한중 기술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진출 초기단계부터 기술 및 합작에 의한 경제협력이 상호 이익을 극대화, 기술과 인력의 협력 및 중국시장에 맞는 아이템을 개발을 하여야 할 것이다.

## < 참고문헌 >

- 김익수, 「중국의 WTO 가입이 동아시아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9.  
 김익수, 「중국의 WTO 가입이 우리경제에 미칠 영향은?」, 월간무역 KOTIS, 1999. 12.  
 박기순, 「중국의 WTO 가입과 금융개혁」, 중국연구회 발표자료, 2000.  
 삼성경제연구소, 「중국의 WTO 가입 및 영향」, ISSUE PAPER, 삼성경제연구소, 1999.  
 삼성경제연구소, 「중국의 WTO 가입 및 영향」, 1999. 11.  
 신태용, 「21세기를 향한 중국의 산업정책과 한·중 산업협력에의 시사」, KIET 정책자료 제114호, 산

업연구원, 1999

전재욱·박상수, 「중국의 WTO 가입이후 시장개방 확대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1999, 「KIEP 세계경제」, 제2권 제10호, 1999년 10월호.

중국의 WTO가입영향분석, 일간해외시장, KOTRA, 2000. 12.

최상래, 「한·중기업간의 무역분쟁에 관한 예방과 대책」, 무역학회지, 제25권 3호, 한국무역학회, 2000. 9.

통상전략컨설팅, 「중국, WTO 가입을 계기로 무역 및 투자관련부분정비, 통상법제브리핑, 제101, 102 호.

황호만, 「중국의 WTO가입이 한국의 대중투자에 미치는 영향」, 한국관세학회, 2000. 8. 6.

WTO 가입을 앞둔 중국의 내년도 경제전망, 월간무역, 2000. 12.

KOTRA 시장조사처, 「중국팀, 중국서부대개발 현황 및 진출방안」, 2000. 9.